



산의 부름에 응답한 인간들의 도전과 좌절

산을 주제로 한 에세이, 등반 도전기를 부쩍 늘어

최근 산을 이야기하는 책들이 눈에 띄게 늘었다.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출간됨을 일으켰던 산악문학이 한동안 실용서에 밀려 주춤하던 최근 들어 하나 둘 그 위용을 다시 드러내고 있다. 주로 산을 주제로 한 에세이나 산악인들의 등반 도전기들이다. 산악문학은 산행체험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는데, 무엇보다 산행체험을 전달하는 데 장르를 제한하지 않는 형식을 취하고 있어 작가나 독자 모두에게 편안하게 다가온다.

산악문학 소개한 에세이도 나와

시나리오 작가인 심 산의 《심 산의 마운틴 오디세이》(폴빛)는 산악인이기도 한 지은이가 자신의 산악등반 경험을 살려 여러 나라의 산악문학을 소개한 독서에세이다. 산을 소재로 한 소설, 수기와 수필을 포함해 모두 24권의 명저를 소개한다. 지은이가 최고의 산악문학으로 꼽는 볼 랑글리의 《신들의 트레버스》, 헤르만 불의 《8000미터 위와 아래》 등 거대한 자연과 맞서 싸운 산악인들의 등반기록을 담았다. 세계적인 산악인과 탐험가들의 단상, 수상, 등반기들을 묶은 산행에세이 모음집 《하늘과 땅 사이》(김영도, 사람과산)도 산서를 읽으며 그 세계에 이끌린 한 등산가의 정신적 편력기다.

라인홀트 메스너의 《산은 내게 말한다》(강현주, 예담)는 위대한 등반가 메스너의 도전과 인생을 담았다. 메스너는 기존의 대규모 원정 방식에서 벗어나 소규모 원정 방식인 '알파인 스타일'을 확립하고 8천미터급 봉우리 14개를 단독등정한 대기록을 세운 최고의 등반가. 하지만 이 책은 그의 성공담이 아니라 극한 상황에서 살아남은 한 남자의 내면에 대한 세밀

한 기록이자 인간적인 자화상이다. 《눈속에 피는 에텔바이스》(박상열, 수문출판사)는 중학생 시절 산꾼의 길로 접어든 뒤 로체, 에베레스트 등을 정복하며 때로 생명까지 위협받았던 지은이의 등반활동 역정을 소개한다. 이렇듯 산서들은 전문 등반 세계에 대한 세밀한 추적 과정을 통해 우리에게 낯선 산악인들의 삶을 보여주고 산행을 대리체험하게 해준다.

산악문학이 성공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강인철의 《에베레스트 2분의 1》(아세아미디어)은 지은이가 기상상태 악화로 원정에 실패한 경험을 통해 성공했을 때보다 실패의 과정이 얼마나 더 힘들고 눈물겨운 일인가를 보여준다. 《희박한 공기 속으로》(존 크라카우어, 김 훈, 황금가지)는 1996년 에베레스트 조난사고 당시 등반대에 참여했던 저널리스트인 지은이가 12명이 사망하게 된 전말을 르포형식으로 보여주고, 《엄마의 마지막 산 K2》(제임스 발라드, 조광희, 놀와)는 K2를 오르다 숨진 여성 산악인을 발자취를 따라간 남겨진 가족들의 애절한 수기다.

마니아층을 바탕으로 성장해와

산악문학에는 어느 문학작품에서 느낄 수 없는 삶에 대한 치열한 성찰이 있다. 삶과 죽음의 경계를 훌쩍 넘어버린 초인들의 모습을 통해 빙벽을 한발한발 오르듯 처음부터 끝까지 생의 순간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열정을 보여준다. 산서들의 매력은 극한의 상황을 이겨낸 산악인들이 인간의 본질을 성찰하게 한다는 데 있다. 또한 인간 한계에 대한 도전뿐 아니라 일상에 매몰된 삶에 신선한 충격을 던지기도 한다. 《나를 부르는 숲》(빌 브라이슨, 홍은택, 동아일보사)은 지리멸렬한 일상에 염증을 느낀

두 남자가 '대척 없이' 에팔라치아 트레일 종주에 나선 도전기다. 문명의 편리함에서 벗어나 끝도 없이 이어진 숲길을 걸으며 느낌을 체험하는 모습을 유쾌한 입담으로 담아냈다. 제프리 노먼의 《따라 그리고 함께 오르는 산》(정영목, 청미래)은 중년의 아버지와 성장기 딸이 자일 하나에 목숨을 내맡긴 채 함께 죽음의 문턱까지 오른 감동적인 등반기록이다.

인간의 등반행위를 주제로 한 산서들은 사과 인간이 빚어낸 감동의 드라마다. 하지만 그런 드라마가 에베레스트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최근에는 백두대간 종주에 얽힌 국내 산악인들의 책들도 꾸준히 출간되고 있다. 《산행길은 인생길》(황정근, 이채)은 평범한 직장인의 백두대간 종주기다. 이 책에서 지은이는 백두대간을 종주하며 자신의 삶에 새로운 출사표를 던지고 지나온 삶을 반추한다. 그런가 하면 《산아, 산아》(북한쪽 백두대간, 지도 위에서 걷는다) (이상 창해)를 펴낸 산꾼 시인 이항지는 철조망에 가로막혀 갈 수 없는 북한쪽 백두대간 910km를 가상등반하기도 한다.

최근에 이처럼 산서 출간이 활발해진 데 대해 예담의 박수현 차장은 "성인들이 즐길 수 있는 모험소설이 거의 없는 데다 '세계 산의 해'라는 시류와도 연관된 듯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산서 시장은 아직 빈약하다. 사람과산의 이정숙 편집장은 "산악도서들은 고정 마니아층에 의해 꾸준히 성장해왔지만 아직은 정보 위주의 실용적인 등반안내서들이 주종을 이룬다. 1980~90년대에 비해 산악문학은 주춤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때 산악문학의 본질을 쉽고 재밌게 소개한 책들이 출간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다"고 말한다.

—박옥순기자